

기고

군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행정  
진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도군은 오늘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의 역할 또한 단순한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형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도군은 적극행정을 핵심 가치로 삼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적극행정은 공직자가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문화를 말합니다. 규정의 한계를 이유로 "할 수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군민의 편의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의 출발점입니다.

진도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우수공무원 포상제도 확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생활 밀착형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2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적극행정 우수협업팀과 우수공무원 선발 2회, 실행계획 수립 1회, 적극행정 위원들의 의견 수렴 2회 등 총 5회의 진도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진도군은 영광군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소극행정의 유발 요인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폭 넓은 시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 속에서 얻은 경험은 우리 행정을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저는 부군수로서, 직원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공직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도군은 군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변화를 실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에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철학을 실현하겠습니다. 작은 불편도 외면하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통해 군민이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진도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진도군은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과감히 도전하고, 따뜻한 행정으로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김선주 진도부군수 기고문

사랑! 사랑이란 무엇일까? "돈다발이다!" 소리치면 무덤 속 시신까지도 뛰어 나온다는 세상이다. 상대방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면서 짙은 사람을 쫓 피우다가도 돈다발 소리를 들으면 앞다 뛰 쟁탈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는 우리들의 세상. 물질만능주의의 요즘 세대를 풍자한 현상들이다. 하지만 순수한 사랑도 많지 않을까.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아무리 물질주의의 세상이라지만 사랑만은

과의 결혼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사촌 '아말리에'와 결혼할 수 없었다. 이때 하이네는 "그들은 서로 사랑했지만/누구도 먼저 고백하지 않았네/차갑고 맑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사랑에 죽어갈 듯하면서도 말하지 못했네."라는 시를 남겼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이 가능했다.

그리고 하이네가 삼촌의 도움을 받았던 이유는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으로 부친의 사업이 파산했기 때문이다. 본래 부친은 직물 상인이었고 모친은 의사의 딸로서 전형적인 부르주아 가문이었기에 부유했었지만, 여하튼 세계사에 남을 수 많은 활동들을 해온 하이네는 본받을 것이 많은 인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는 인생 초기부터 사망할 때까지 거의 40년 동안 병마와 싸웠다. 58년의 생애 중, 그런데도 세계 문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것이다. 그리고 휴머니스트였다. 그 당시 엄격한 신분사회 속에서도 파리에서 구두상점 점원인 마틸드와 결혼한 것이 그 한 예다. 지극히도 사랑했었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이네는 인생 종말에 다가가면서부터는 신경계통의 질병으로 상반신이 마비되어갔다. 이런 현상을 그는 일명 '침대 무덤(Matratzengruft)'이라 칭하면서 주변을 편하게 해주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은가. 여기에서 시력까지 급속도로 약화되어 갔다. 이렇듯 약조건이었지만 정치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작품 활동 또

한 게 유리하지 않았다.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을 아름다운 불꽃으로 피워갔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후미늬즘적인 것은 자신이 죽은 후 황량한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 혼자 남게 되는 사랑하는 여자 마틸드를 지켜주고 보호해달라는 시 「천사에게」를 써서 주변에 하소연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내 아내인 동시에 내 아이였다/내가 저승에 가게 되면/그녀는 과부이자 고아가 될 것이다!/나는 아내와 아이를 홀로/이 세상에 남겨둔다. 그녀는 내 마음을 믿으며/아무 걱정 없이 충실하게 내 품에서 쉬었다./하늘 높이 있는 너희 천사들아/나의 이런 흐느낌과 간청을 들어다오/내가 황량한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지켜다오./너희들 인간의 방패와 후견인이 되어다오./나의 불쌍한 아이, 마틸드를 지켜주고 보호해다오."라는 시로, 돈과 권력이 무엇일까. 매우 잘라낸 것을, 우리는 모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 가잖은가.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산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생활 속 전기 사용, 화재 위험은 가까이 있다

겨울철에는 난방기와 전열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기화재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

전기화재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전선 손상이나 전기 과부하 등 사소한 원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평소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편리함에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기기를 연결하거나, 노후된 전선과 멀티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습관이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전원을 켜둔 채 방치하거나

외출 시 플러그를 분리하지 않는 행동은 전기화재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된다.

전기화재 예방은 거창한 준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가정 내 전기설비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전열기 사용 후 전원을 차단하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일상 속 전기 사용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곧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 된다.

보성소방서는 시민들이 전기 안전에 대한 관심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길 바란다. 전기화재는 미리 살피고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다.

오늘 하루, 집 안의 전기 사용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송창훈

오늘의 운세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음력 12월 12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horoscopes for the day. Each sign includes a small illustration and a short paragraph of text.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email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the 50th anniversary of the Gyeongju Expressway. Features a large hand graphic with a map of Korea on the palm, and text in Korean: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50th Anniversary of Gyeongju Expressway Opening, Making the Lifeline of South Korea!).